<화학산업 경쟁력을 배양하자! … VII>

플래스틱의 장래와 환경

21세기에는 환경문제가 산업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모르는 관계자는 없을 것이다. 환경문제는 이미 생활오염의 차원을 떠나 지구생존을 좌우하는 문제로 대두됐고, 심각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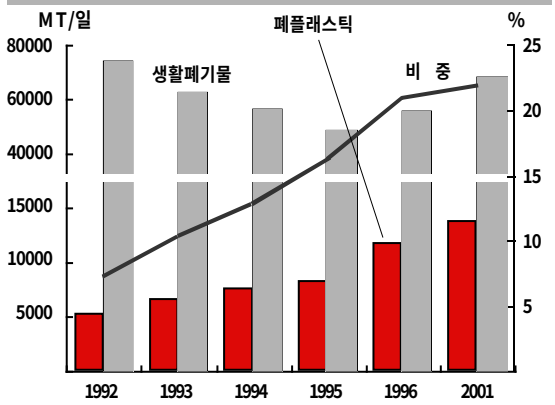
지구온난화를 불러일으키는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해 CFC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이미 핵심이슈에서 벗어난지 오래이고, 전세계적으로 리사이클붐이 일어난 것도 몇년전의 일이다. 오늘날에는 PRTR, HPV 화학제품 등과 같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화학제품의 유통체계를 점검하고 환경오염 유발요인을 테스트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을 정도이다. 한국과는 너무나도 먼나라 이야기 같지만 현실로 다가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PRTR, HPV와 같은 선진국의 대응방안을 제대로 논의하고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적극성은 찾아볼 구석이 없고, 아직도 플래스틱 리사이클 및 폐기물부담금 문제를 가지고 환경부와 석유화학, 플래스틱 사업자단체 및 관련기업들이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화학경제연구원(CMRI)이 2000년의 6대 합성수지 국내수요를 조사·분석한 결과, 합성수지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환경문제로 나타났으며, 실제적으로도 1999년2월「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법」개정안 시행에 따라 환경문제와 관련된 합성수지 국내수요가 막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1998년 합성수지 국내수요가 IMF체제에 따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전년대비 22% 감소한 것은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라 하더라도, 1999년에는 합성수지 수요가 전체적으로는 20% 증가했으나 환경과 밀접한 품목은 수요증가율이 대폭 위축됐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문제를 도외시하고서는 플래스틱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기약할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폐플래스틱 발생량 추이



자료) 환경부,「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안)」1996.7

대표적인 합성수지가 LDPE, HDPE, PP, PS로 LDPE는 태풍과 홍수에 따른 피해복구로 농업필름용 수요가 증가했으나 한계성이 드러나고 있고, HDPE 및 PP는 큰 영향을 받지않을 것으로 보였으나 비닐봉투 및 1회용품 사용규제가 크게 작용했으며, PS는 환경호르몬 문제까지 겹쳐 장래성이 의심받는 정도에까지 이르고 있다.

하지만, 석유화학을 비롯한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은 합성수지 수요의 환경영향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1996년 환경부와 마찰을 빚은 폐기물부담금 문제마저도 해결하지 못한 채 어물쩍거리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플래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바탕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말이 전도된 채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놓고 0.3%도 지나치니, 3.0%를 부과해야 한다느니 논란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음은 물론 관련기업들은 석유화학이 부담해야 하니,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니 허송세월하고 있다. 환경부나 관련기업들도 그러해서는 아니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CMRI는 석유화학 및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이 합성수지의 장기수요를 정밀하게 조사·분석하는 것과 아울러 플래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으로 접근해 환경 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민일반들도 플래스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권고하고

싶다. 환경부도 객관적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함은 물론이다.

석유화학 및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은 플래스틱의 환경영향 문제가 회피하는 것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님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화학저널 2000/2/21>